

한국마사회 남자탁구팀, 전북 대표로 뿔다

도청서 전북 연고 협약식 개최

한국마사회 남자탁구팀이 전북 대표로 활약하게 된다.

19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한국마사회 남자탁구팀 전북 연고 협약식(MOU)이 이날 도청 접견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지사와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최형원 도 체육회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협약으로 한국마사회 남자탁구팀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해 각종 전국대회에 전북 유니폼을 입고 전북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도 체육회는 남자탁구팀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비와 운영비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송하진 지사는 "마사회 남자탁구팀이 전북을 연고로 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100회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마사회와 전북의 이름을 널리 드높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송 지사는 "한국마사회 브랜드처럼 남자탁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는 도청 접견실에서 한국마사회 남자탁구팀 전북 연고 협약식(MOU)을 했다.

구팀이 전북 도민, 그리고 탁구팬들과 함께 '벧 초련'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창단한 한국마사회 남자탁구팀은 창단과 동시에 '대통령기 전국 시도탁구대회'에

서 남자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마사회 남자탁구팀은 최형원 감독과 김상우 코치 및 선수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 돼 있다. /장은성 기자

한전 무주지사, 지역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 성과 '특독'

한전 무주지사(지사장 고영주)는 8~9월 기간 동안 환경 개선사업 시행을 통해 지역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밝혔다.

한전과 지역어르신단체 간 협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자 실시한 이번 사업은 4차례 환경개선 사업 시행으로 총 12명분의 지역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했다.

7월 15일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와 지역어르신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후, 8월 14, 20~21일 총 3일에 걸쳐 한전 무주지사 사옥주변 정지, 제조작업을 시행했으며, 9월 17일에는 무주읍내 지중변압기·가공전주에 부착된 불법홍보물 제거작업을 시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경찰, 반석어린이집 초청 견학프로그램 실시

임실경찰서(서장 이동민)는 19일 반석어린이집 어린이 30여명을 초청하여 임실경찰서 견학프로그램을 전개했다.

이날 견학은 경찰서내의(생활안전, 112상황실, 교통관리, 조사실, 구 유치장 등)를 둘러보면서 실제 경찰관들의 업무현장과 상황을 견학하였으며, 교통순찰차 탑승 체험과 포토존에서 함께 사진촬영하는 시간도 가졌다.

견학에 참여한 유아들은 평소 재밌는 경찰관을 잘 볼 수 없어 신기하고도 호기심 어린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시종일관 견학을 함께 했고, "도둑은 어떻게 잡아요?"라며 평소 궁금증을 질문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임실=진홍영 기자



완주군, 노인일자리 어르신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완주군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위기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19일 완주군 보건소는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및 감염병예방 교육을 실시,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한일장신대학교 윤매옥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심장 충격기 사용방법, 모형인형을 통한 심폐소생술 실습,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등으로 이루어졌다.

노년기 심기능 저하 및 면역력 저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응급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 호응을 이끌어냈다.

노인일자리 반장은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심폐소생 처치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이러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해경 보건소장은 "생존을 결정짓는 골든타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을 꾸준히 확대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욱 기자

무진장소방서, 자살위험현장 소방대응능력 강화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군민생명 보호를 위한 자살위험현장 소방대응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는 생명보호 위한 인명피해 방지에 목적이 있으며, 소방서에서 직장훈련 시 자살예방 관련 교육과 병행하여, 현장출동대원에 대한 자살시도자 대응 철지와 현장활동 대응능력 향상에 대한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무진장소방서에서는 자살위험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하게 환자를 구조했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무주읍 안모(85)씨가 자살 추정으로 신고 된 사례로써, 소방서에 따르면 요구조자(자살시도의심자)가 산으로 올라갔다는 신고를 받고 야간 10시50분경 신속하게 대응을 해 환자를 구조했으며,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요구조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호흡이 회복된 사례가 있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축! 결혼

신랑 추성준 군 (추점구·박정순씨 장남)

신부 전정숙 양 (전문선 전주매일 무주주재국장·박병희씨 처녀)

- ▶ 일시: 10월 6일(일) 오전 11시 10분
- ▶ 장소: 대전 유성구 호텔 ICC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55)
- ▶ 피로연: 10월 4일(금) 오전 11시부터
- ▶ 피로연장소: 천지가든
- ▶ 연락처: 010-2300-4253(전문선)

남원경찰 도동지구대, 범죄예방 위한 간담회 가져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 도동지구대는 지난 18일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순찰에 관하여 소통의 시간을 위해 노인 자치경찰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활동 및 교통사고예방활동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동권 지구대장은 지역사회 민관경 조직 간 연계를 통한 지역 사회 안전망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노인자치경찰대 활동에 대해 감사를 표시전하고, 앞으로도 지역 치안활동에 대한 주민관심 환기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 추진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차량보다 보행자가 먼저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운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일부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남원경찰에서는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인 향교오거리, 승사교4가, 한빛교차로 등 6개소에 플래카드를 설치했고, 남원시청과 협업체 관계 기관 4개소에 관련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